

## 한눈으로 보는 조선우표의 생생한 역사

### \* 조선 우 표 박 물 관 에 서 \*

우표의 역사를 논할 때면 흔히 영국의 유명한 교육자였던 로랜드 힐을 꼽곤 한다. 《근대우편의 창시자》, 《근대우편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그가 남은 우편제도를 개혁하고 우편료금전납제를 실시할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 후 1840년 5월 1일 첫 우표가 세상에 나왔던 것이다.

오늘날 우표는 단순히 우편물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유가증권으로서만이 아니라 해당 나라와 민족의 주권을 상징하고 발전 역사를 담고있으며 정보전달자, 광고전진물, 수집품 등으로서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세계적판도에서 널리 보급되고있다. 1996년까지 우표를 발행

한 나라와 지역이 244개, 발행종수가 일종 약 3 000여종에 달한 사실을 놓고도 잘 알수 있다.

조선우표는 언제부터 발행 되었으며 어떤 발전행로를 거쳐왔는가?

평양의 고려호텔에는 정면에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가 조선우표를 들고 세계를 향하여 날으는 모습을 형상한 조각품이 있는 조선우표박물관이 위치하고있다.

2012년 4월에 개관된 이곳에는 공화국의 발전면모를 보여주는 우표와 우편봉투, 엽서들이 정치, 군사, 경제, 문화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전시되어있다.

흥미있는것은 이곳에서 1884년 11월 8일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발행된 《문위우표》(당시 화폐단위가 《문》이라는에서 불려진 이

름)와 1895년 7월 22일에 발행된 태극보통우표, 1900년 1월~1901년 5월에 화가 지창한이 도안한 리화보통우표, 1902년 10월에 발행된 고종황제 즉위 40년기념우표들을 볼수 있는것이다.

하지만 이곳을 돌아볼수록 사람들은 진정한 인민적우표의 발행은 나라가 해방된 후부터 비로소 시작되었음을 페부로 느끼게 된다. 1946년 3월 12일 해방된 조선의 우편사업개시를 기념하여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축복속에 2종의 조선우표 《무궁화》와 《삼선암》이 발행된 때로부터 조선우표는 자랑스런 발전력사를 수놓아왔던것이다.

조선우표는 주체조선의 상징물의 하나이며 역사의 증견자이다.

이곳에 전시된 조선우표들에는 주인된 새땅에서 인민

들이 기쁨과 환희에 넘쳐 부르던 《발갸이노래》와 《녀성의 노래》, 《조선청년행진곡》의 우렁찬 선율이 흐르고 조국해방전쟁승리를 경축하는 전승의 축포성도 있으며 《북구건설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패화를 딛고 세계가 보란듯이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운 빛나는 성과들이 역사의 증견자로 새겨져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축복속에 자기의 탄생을 알린 때로부터 조선우표는 지난 60여년간 5 800여종이 발행되었다.

조선우표박물관에 가면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조선우표에 대한 자부심을 한껏 느낄수 있다.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릿치오네 90》과 《릿치오네 91》국제우표시장에서 특별권위상을 수여받은 기념전지 《금강산의 집신

봉》(1990. 8. 24)과 《동꽃과 강아지》(1991. 8. 27), 프랑스에서 진행된 《92우표세계컵》쟁탈경기에서 아시아선수권을 쟁취한 남극탐험우표(1991. 4. 20)와 신의주-류초도사이 다리우표(1990. 2. 27), 일본에서 진행된 월중 세계인기우표추첨경기에서 제1위를 쟁취한 헬리헬성우표(1985. 8. 25) 등은 볼수록 민족적자부심을 높여준다.

무릇 우표를 수집하는데는 한생이 걸리기도 한다. 그만큼 품이 많이 드는 조선우표의 발전면모를 한눈에 볼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것은 행운이 아닐수 없다.

오늘 조선우표박물관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이 저마다 찾는 유명한 관광명소중의 하나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우리 나라에서 처음 발행된 《문위우표》



새 조선의 첫 우표 《무궁화》, 《삼선암》



1950년대에 발행된 우표들



본사기자

## 체육발전에 이바지할 복합올리고펩티드 개발

최근 경공업과학원 식료연구소의 과학자들이 복합올리고펩티드를 자기 스스로 개발한데 이어 그 생산을 공업화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펩티드는 인체에서 항암, 비만방지, 칼슘보충 등 중요한 치료기능을 나타내는 생리활성물질로서 1980년대 이후부터 세계적인 초점을 모으고있는 물질이다.

특히 이 물질을 응용하여 개발한 많은 식품과 음료들이 체육인들과 금메달리스트의 인연을 더 가깝게 해주면서부터 이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있다.

이밖에 경공업과학원 식료연구소의 과학자들이 개발한

것이 펩티드중에서도 그 이용범위가 가장 넓은 복합올리고펩티드이다. 이것이 개발됨으로써 공화국에서는 체육인식품과 음료생산을 다량적으로,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

과학자들의 개발목표는 처음부터 국산화였다. 사실 다른 나라의 기술을 본따면 개발은 쉽게 할수 있어도 국내에서 공업화하자면 여러가지 난문제들이 있어 개발을 위한 개발로 끝나게 된다.

복합올리고펩티드의 개발이 이처럼 환영받는것은 바로 국내실정과 환경에서 공업화를 할수 있기때문이다.

이밖에 과학자들은 자기들이 개발한 복합올리고펩티드

를 리용하여 복합올리고펩티드종합영양제와 음료를 만들어 유술, 레스링, 권투, 럭비, 축구, 속도빙상, 마라톤선수들에게 적용해보았는데 선수들의 피로회복과 체중조절, 근육재생을 촉진하는데서 좋은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제1차 전국체육과학기술성과전시회와 국가과학원 과학연구성과전시회에서 이 제품은 1등으로 평가되었다.

이곳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에 복합올리고펩티드생산의 공업화를 기어이 실현하기 위하여 지혜와 정열을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 영양식료품을 물에 풀어 마시려면

적지 않은 사람들은 가루우유, 꿀 등 영양식료품을 끓는 물에 풀어 마신다. 사실 이렇게 하는것은 비과학적이다.

실험한데 의하면 이런 영양식료품의 주성분인 빠다, 포도당 등은 80℃에 이르면

일부 영양성분이 분해변질되게 된다.

그러므로 물을 끓였다가 40℃정도로까지 식힌 후 풀어먹는것이 좋다. 그렇게 되면 영양성분이 손실되지도 않고 맛도 좋다.

특차를 끓는 물에 풀면 그

의 유효성분(특히 비타민 C)이 파괴될수 있다.

그러므로 특차는 일반적으로 70~80℃의 물에 푸는것이 좋다. 즉 끓는 물을 보온병에 넣어두었다가 보온병의 물로 차를 풀어마시면 된다.

본사기자

옛날 어느 산골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있었다. 겨울이 되자 그들부자는 눈 때문에 길이 막혀 마실도 못가고 종일 집안에 불박혀있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갑갑한 집에 아들이 아버지보고 웃음을 하고자 하였다. 아버지는 단마디로 거절하였다. 한것은 아들녀석과 마주앉아 웃음을 한다는것이 별스러웠고 또 웃음이라는것이 별로 재미가 있어보이지 않았기때문이었다.

그런데 아들이 하도 귀찮게 조르는 바람에 아버지는 마지 못해 웃음을 마주하게 되었다.

처음 아버지는 한두판은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였다. 그런데 몇판 지나서부터는 이기면 이긴 재미에 한판 더, 지면 아쉬운 생각에 한판 더 하다니 해가는

## 웃음의와 관련된속담

줄 모르고 정신없이 웃음이를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연거퍼 두판이나 이긴 아들이 오늘은 그만 하고 하겠다. 아버지는 한판 더 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버지가 또 졌다. 아버지는 체면을 무릅쓰고 한판만 더 놀자고 하였다. 그런데 또 지게 되었다.

아버지는 아쉬운 생각을 이기지 못해 다시 한판만 더 놀자고 했으나 아들은 약속대로 그만하자고 하면서 웃음을 밀어놓았다. 그래서 부자간에 한판 더 놀자거나, 그만하자거나 하면서 밤새 심경을 하였다.

이때부터 경쟁이나 내기에서 지고도 실은 그라지 않고 자부 달라붙는 사람을 《웃진 애비》라고 부르게 되었다.

본사기자

## 타박상에 찬물찜질

타박상을 당한후 곧 찬물찜질을 하면 아픔이 잘 멎고 부은것도 인차 내린다.

근육이 외부적타격을 받으면 모세피줄에서 피가 나오고 타박받은 부위에 어혈이 생기여 붓고 아프며 잘 움직일수 없게 된다. 이때 찬물로 찜질하면 피줄이 수축되면서 피나오는것이 멎고 어혈이 없어지면서 부은것이

내리고 아픔이 멎게 된다. 방법: 10~15℃의 찬물에 타박상을 받은 부위를 잠그거나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찜질한다. 수건은 30초에 한번씩 갈아대는것이 좋다. 이렇게 한판에 15분정도 하루 3~4번 하면 타박상이 인차 낫는다.

본사기자

## 순결한 마음 (9)

글 주 광 혁, 그림 김 윤 일

지금도 사동전체를 감싸안듯 은은하게 들려오는 음악소리. 그 음악도 같았다.

음악이 태아의 조기교육에서 첫자리를 차지한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머 어는 한 나라의 과학자들이 도마도의 육성에 음악을 도입하여 좋은 수확을 거두었다는 실례까지 들어주던 반장이었다.

식물에게서조차 좋은 효과를 얻었는데 동물이라면 더 좋지 않겠냐며 작업반동물들 《평화》에게 작업먼저 도입해보라며 나를 떠밀어주던 반장이 아니던가.

우리가족들의 마음속에까지 친근하게 자리잡고있는 반장이었다.

언젠가 내 생일을 가족들과 함께 우리 중앙동물원에서 보내게 된것도 실은 인정반장이 마음쓴것이라고 했다.

그날 저녁 잠든 애들의 머리를 쓸어주며 하던 남편의 말에서 나는 남모르게 내주의를 감작고있는 반장의 뜨거운 감정을 또 한번 느끼게되었던것이다.

...

갑자기 《아, 나온다!》하는 함성에서 나는 순간적으로 얼며떨었다.

투명한 막에 쌓인 첫새끼의 머리가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마음이 들뜬 반장이 내 등을 두드렸다.

《명옥이 장해, 장하단 말이야. 암, 그래서 명옥이지.》

순간 마음속에서는 몽롱한것이 가득히 차오르며 이렇게 말하고있었다.

《아니에요. 《평화》가 무사히 출산하게 된것은 전적으로 반장동지의 수고예요.》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반장은 《평화》에게 대견한 눈빛을 보내며 빙그레 웃음뿐이었다.

《용라, 《평화》야. 그렇지, 그래.》

지금 내 가슴속에는 끝없는 행복감이 조수처럼 밀려들었다.

드디어 《평화》가 그 모진 고통을 이겨내고 출산하기 시작하였다.

자원이 만들어준 출산의 고통을 힘겨롭게 밀어내며 첫새끼가 나오자 《평화》는 물고있던 내 손을 놓아주었다.

그제서야 나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별결계 부어오른 상처자리로 새어나온 피가 어느덧 엉켜붙었고 까맣게 잊고있던 아픔이 가슴을 깨어무는듯 미미미미 아파나기 시작했다.

《언니. 빨리 닦아요.》

순애가 내민 더운물레 적신 수건을 받으려 고개를 들었던 나는 갑자기 달아오르던 손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을 느꼈다.

열댓 내려다본 나는 그만 가슴이 뭉클해졌다.

런민과 감사의 정이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던 《평화》가 불거져 앉은것처럼 달아오르는 내 손을 서늘한 혀바닥으로 살뜰히 핏아주고있었던것이다.

나는 《평화》에게 그대로 손을 말진게 호되지는 시야를 털어버리느라 머리를 흔들었다.

## 김일성방송대학 교무부에서 일합니다

김일성방송대학에서는 주제103(2014)년 설명절에 즈음하여 기념특강을 다음과 같이 조직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의제목: 인민의 리상과 념원이 현실로 꽃피나는

사회주의 이 조선

강의시간: 1강의

강의날자: 주제103(2014)년 1월 30일

홈페이지주소: <http://www.ournation-school.com>

전자우편주소(E-mail): [schoolmanager@silibank.com](mailto:schoolmanager@silibank.com)

청강생 여러분들이 주의깊게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민족의 설맞이 준비 풍습

오는 31일은 설명절이다. 설명절은 한해에 첫번째로 맞는 명절로서 새해를 축하하여 가장 즐거웠는 명절의 하나이다.

설은 옛 기록들에 의하면 《세수》, 《년수》, 《원단》, 《원일》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모두 한해의 첫날이라는 뜻이다.

설은 복잡다단한 생활로 가득찬한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희망을 안고 맞는 새해 첫 명절인것만큼 우리 선조들은 설날을 앞두고 명절맞이준비를 착실히 하였다.

설날이 가까이 오면 우선 녀인들은 식구들의 설옷(설빔 또는 세장)을 마련하였다.

부유한 집들에서는 새 천으로 모든 식구들이 입을 옷을 다 짓거나 또는 남정들이나 아이들의 옷만을 지었다. 여러벌의 새 옷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설옷으로 입었고

설날에도 갈아입을 새 옷이 없는 집들에서는 입던 옷이라도 빨아서 고쳐짓거나 깨끗이 손질하여 입었다.

다음으로 설을 깨끗한 환경에서 지키 위하여 집안팎을 청소하고 손질도 하였다. 집안팎을 가셔내는것은 목은 먼지와 때를 지만해와 더불어 시원스럽게 털어버리고 청신한 기분으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도 좋은것이였다.

설맞이준비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설음식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옛날부터 설에 떡을 만들어먹는 풍습이 있었다. 설대목에 이르면 설맞이떡을 만들기 위하여 떡방아를 찧고 가루도 났으며 떡을 빻어 삶거나 찌기도 하였다. 지집도 지지고 고기도 볶았다. 우리 선조들은 또한 설날그믐날에 목은해의 빛을 깨끗이 청산하거나 새해에는

었다. ◎ 설을 상징하는 떡국 떡국은 설명절을 상징하는 음식으로 많이 만들어먹었다. 떡국의 맛을 둔구기 위

## 설음식 몇가지

◎ 설날의 떡 설날음식가운데서 첫손가락에 꼽히는것은 떡이다. 옛 기록에 의하면 설음식떡으로는 시루떡(설기떡), 찰떡을 제일로 일러왔다.

설날에 먹는 시루떡(설기떡)가운데서 이체를 띤것은 찰쌀가루에 김정콩, 대추, 밤, 꿀 등을 버무려 쥔 떡이었다. 설명절떡가운데서 누구나 즐겨먹은것은 찰떡이

해 여러가지 양념과 부재료를 두기도 하였는데 쟁고기를 넣고 끓인 떡국을 으뜸가는것으로 여겨왔다. 해마다 떡국을 한그릇씩 먹는데 마라 나이드 한살씩 늘어나는 뜻에서 지난 시기 어른들은 흔히 아이들의 나이를 물을 때 떡국을 몇그릇씩 먹었느냐고 묻곤 하였다.

풍년이 들기를 바라는 념원에서 일부 도구를 새로 장만해놓았다.

개성지방에서는 한해동안 마음대로 돈이나 물건을 꾸어쓸수 있으나 설날그믐날이 되면 모두 갚아야 하였다. 그래야 새해부터 또 빚을 얻올수 있고 외상도 받을수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상업이 비교적 발달한 개성과 같은 도시에서 있었던 설날그믐날의 풍습이였다.

곳에 따라서는 설날그믐날 《목은 세배》라고 하여 세배를 다니기도 하였다. 옷어른들이 있는 집에 찾아가 《과세 안녕하십니까.》라고 하면서 큰절을 하였다. 목은해를 잘 보내라는 뜻이였다. 물론 목은 세배를 했다 하더라도 다음날 설이 되면 또 새해세배를 하였다.

본사기자

◎ 약과와 강정, 수정과 약과와 강정은 다같이 설날의 으뜸가는 설음식이였다. 약과란 이름은 약으로 쓰이는 꿀을 넣어 만든 《과일》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는데 아이들이 즐겨먹었다.

설날아침 늙은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어린이들로부터 세배를 받고 흔히 강정을 달레션물로 주곤 하였다. 수정과는 설음식가운데서 이체로운 음료였다. 수정과는 시원하면서도 달고 향긋한 맛을 내는데 설음식으로서 특색이였다.

본사기자



찰 떡



떡 국



수 정 과

고맙다. 《평화》야. 정말 용케도 견디어주었구나. 저런, 너 어디서 배웠다. 새끼가 쌓여있던 막을 참 잘 찢는구나. 옳다, 그렇게 해, 이런 새끼가 첫 호흡도 하고 몸도 말리우게 살아주어야지. 그렇지! 정말 잘하는구나. 그건 어찌되고, 그건 태출이라는건데 네가 먹어야 해. 그걸 먹고 30분후면 또 다음 새끼가 나온단다. 너쳐

있는 애미같군.》 《평화》가 다섯마리의 새끼들을 다 낳아서야 긴장이 풀린 인정반장이 허리춤의 수건을 뽑아 이마를 문지르며 하는 소리다. 《그 말도 틀리지는 않아요. 내겐 딸이 없으니 《평화》가 내 《딸》이 아닐까요?》 내가 한마디 하자 순애가 들까불었다.



럼 다산모들은 약 반시간의 간격을 두고 낳게 돼. 그렇지 않고 단번에 낳을라면 네가 못견디거든.

내가 《평화》와 대화라도 하는듯 부지런히 손을 놀리며 거들어주자 인정반장이 허를 내뒀었다. 《허참, 제 딸의 산데앞에

《아니, 그럼 언니는 《평화》의 《어머니》. 야! 거기 참 멋진 말이에요.》

출산하는 《평화》와 함께 입술을 찡그리기도 하고 제손을 짹 쥐기도 하면서 휘둥그런 눈으로 새 생명이 태어나는 모습을 지켜보던 순애가 《절대불변》의 진리를

발견한 철학자나 되든듯 환성을 지르며 돌아간다.

《됐어, 그만 까불어.》 말은 그렇게 했어도 나역시 순애를 겨냥고 빙빙 돌고 싶은 심정이였다.

새끼들을 활아주던 《평화》가 자랑스런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저 맑은 《평화》의 눈빛, 모진 눈보라를 이겨내고 얼어붙었던 땅에 꽃을 피우고 아내는 봄의 정취처럼 부드럽고 따스하며 궁지에 찬 저 눈빛.

바로 저 눈빛이 시련을 이겨내고 새것을 창조해낸 궁지가 가져다주는 희열과 환희가 아니던가.

《평화》의 그 눈빛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비껴있을까?

내가 그 무엇을 위해 바쳤다고 생각한다면 몇몇하게 비끼지 못하리라.

웅당 바쳐야 하고 그것을 위해 낮과 밤이 따로없이 헌신하는 저 반장아바이처럼 될 때 나도 그 무엇인가 이루어놓았다고 자랑스럽게 그 눈빛앞에 나서게 될것이다. ...

어느덧 동녘을 들추고 빠금히 머리를 내민 해가 호동안에 밝게 비쳐들어오며 반장아바이 순애의 얼굴에 맺힌 땀방울들에 매달려 아롱거리고있었다.